

한명기, 『정묘·병자호란과 동아시아』, 2009.

정묘·병자호란 시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기보다는 디테이한 설명에 주력

- 被擄人, 貳臣 문제, 동시기 조일관계 등에 주목

광해군대 후금에 대한 기미정책과 일본과의 국교재개(1609)

- 명과 후금 사이의 양단외교, 명의 재정병 거부

인조반정의 국제정치적 의미

- 廢母殺弟, 弊政 및 再造之恩을 망각하고 오랑캐와 내통했다는 명분으로 반정
- 명청 조정에서는 ‘찬탈’로 기록했다가 후일 조선의 적극적 辨誣로 수정
- 책봉제도 =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연결 고리

정묘호란(1627)=제한전쟁, 모문룡 제거와 조선 회유 목적

- 정묘화약과 告天의식, 一家 형제관계로 정의
- 사대질서의 권력정치적 속성

병자호란(1636)의 발단

- 홍타이지의 차하르 몽골 평정과 대원제국 국새 취득(1635), 滿·蒙·漢 제신 추대로 황제 즉위, 대청제국 선포(1636), 조선에 칭제건원 압박, 나덕헌의 배례 거부
- 再造之恩, 대명의리론, 척화파와 주화파의 대립, 삼전도의 城下之盟
- 사대질서의 규범적 속성, 화이분별에 입각한 hierarchy

인조의 친청정책

- 인조의 권위실추, 소현세자와의 갈등 등 정권의 취약성 타개 차원

조선의 당국자들은 무엇에 홀려 대책없는 전쟁의 길에 들어섰을까?

- 압록강변 결전 대안 무시, 강화도 신드롬
- 청에 대한 항전은 강약, 승패, 존망을 초월하여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감수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?

정묘·병자호란 시기 조선의 대일 유화정책

- 국교, 무역의 재개와 사절 궤보의 상경(1629)
- 北虜南倭라는 남북으로부터의 두 가지 위협 중 청의 위협이 급선무
- 청의 명-조선-왜 동맹에 대한 우려

“가난한 선비의 아내와 약소국의 신하는 각각 그 올바른 것에 그칠 따름이다”(최명길)